

2562
2018

01

마중물
목은해와새해



울림
듣게 될 때
듣기 싫은 말을



디딤돌
첫 마음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불교총지종

정진바라밀

일체지혜 모든 선법 정진으로 일어나며
 세간생활 모든 서원 정진으로 성취되고
 탐진치등 일체사견 나태로서 일어난다.
 사람 비록 기술 있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의뢰하고 계으르면 성공함이 없을지니
 해태한 자 하는 사업 그 공덕이 미소微少하여
 방울물이 바다까지 못 가는 것 같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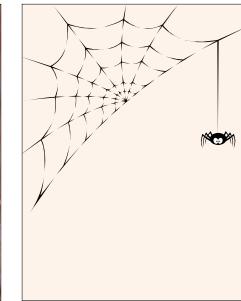


우|드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로|마



불교총지종 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므로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십선성취_28

선善한 사람
 — 덕현

생활 속 식물이야기_54

네 사전에
 작심삼일은 없다
 — 이태용

걸망에 담긴 이야기_72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내가 바라는 건 고작...
 — 법일

04 불교이야기

- 10 마중물
- 12 계율이야기
- 18 살다보면
- 24 향유
- 28 십선성취
- 32 마음의 등불
- 36 뜻다 한 이야기
- 40 울림
- 42 발길 머무는 그곳에
- 46 법향기 속으로
- 50 디딤돌
- 54 생활 속 식물이야기
- 58 산책
- 60 거꾸로 보기
- 64 지혜의 뜨락
- 68 시선
- 72 걸망에 담긴 이야기
- 74 뜻 바루기
- 76 되짚어보기
- 78 만다라세상 컬러링

고성제2_회령

묵은해와 새해 — 법정
 참회하지 않는 자는 사면하지 말라 — 법경
 변명 — 이옥경

독수리Aegypius monachus — 정옥식
 선善한 사람 — 덕현

모르는 줄 모른다 — 원효

사랑으로 키우다 — 권도형

듣기 싫은 말을 듣게 될 때 — 법상

아름다운 황금사원 — 김단비

법시공덕 — 법수연

첫 마음 — 지현

네 사전에 작심삼일은 없다 — 이태용

첫눈의 전설 — 김대곤

우리에겐 싫어할 이유와 권리가 있다 — 박현희

부처님 이마의 도끼 — 보현

너희들을 보내며 — 경문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내가 바라는 건 고작... — 법일

포살布薩 — 김재동

주인공主人公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새날이 밝았습니다.
무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호 인생열차를 타고
다음 기차를 갈아타기 위하여
또 한 해를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무시무종의 시간 위에서
새해다 묵은 해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 중생들은
이렇게 분절을 정해놓고
마음을 추스르면서
인생길을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돌이켜 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사바세계야 당연히
생각지도 않은
별별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올해는 좀 더 조용하고
다들 희망에 불타서
열심히 살아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
법계의 품안에서
불보살님의 자비와 지혜의 빛이
여러분 모두에게 두루 비추어져서
함께 웃고 더불어 즐기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화령 합장

고성제2

화령

불교총지종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 주교



고 苦의 종류

불교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교리를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삼법인·사성제·팔정도·오온·십이처·십팔계·삼십칠조도 품 등과 같이 숫자로써 교리를 갈래짓는 것을 법수_{法數}라고 합니다. 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선 삼고라고 하여 고고_{苦苦}·괴고_{壞苦}·행고_{行苦}의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고고는 우리가 육체를 지님으로써 느끼게 되는 괴로움입니다. 즉 몸의 통증과 병이나 배고픔, 추위, 더위 등으로 인한 괴로움이 고고입니다.

괴고는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이 허물어지는 것에서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거나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괴로워하거나 명예나 인기가 시들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 것 등에서 오는 괴로움으로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변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괴로움을 괴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부자인 상태에서 가난한 상태로 되었을 경우 가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고통보다는 가난해졌다는 그 상태에 대한 자괴감이 더 괴롭습니다. 권력에서 밀려났을 경우에도 권력에 밀려 난 것에 대한 육체적, 물리적 고통보다도 권력을 놓쳐버리고 남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괴고는 정신적인 것에 중점이 놓여지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고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는 무상함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집착하는 모든 것이 변화해 가는 것에서 오는 괴로움으로서 경전에서도 “변화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던 나의 육체가 늙고 병들며 사랑하는 사람과도 언제 까지나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이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땅땅거리던

재산과 명예도 다할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갑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행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체개고라고 하는 것도 이 행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변화하는 윤회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회전생하고 있는 범부에게는 괴로움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부에게 있어서는 그 즐거움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상대적으로 더 큰 괴로움이 따라오기 때문에 진리의 세계가 아닌 윤회의 세계에 있는 범부에게 그것은 절대의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절대의 행복인 열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행고는 깨닫지 못한 모든 범부가 처한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체개고인 것입니다.

또 팔고_{八苦}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일아함경》에서는 팔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성제란 무엇인가? 이른바 태어나는 것은 괴로움이요,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며, 늙는 것도 괴로움이요, 죽는 것도 괴로움이며,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오온에 집착하는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와 같이 경전에서는 생·로·병·사의 사고_{四苦}에 원증회고_{怨憎會苦}·애별리고_{愛別離苦}·구부득고_{求不得苦}·오취온고_{五取蘊苦}의 네 가지 괴로움을 더하여 팔고_{八苦}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팔고 가운데에서 먼저 생고를 살펴봅시다. 생고_{生苦}라는 것은 태어나는 그 자체가 고라는 의미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육도에 윤회하는 자체를 고로 보기 때문에 모태에 생명이 깃드는 순간 이미 고를 받도록 되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체개고와 마찬가지로 행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고_{老苦}와 병고_{病苦}가 고라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젊고 아름답던 육체가 노쇠하여 볼품없어지고 병으로 신음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겪어야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늙고 병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어쩌면 육체적인 고통 그 자체보다도 이로 인해 겪어야 하는 정신적인 불안과 고뇌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즉 감각적, 생리적인 고고보다도 괴고의 면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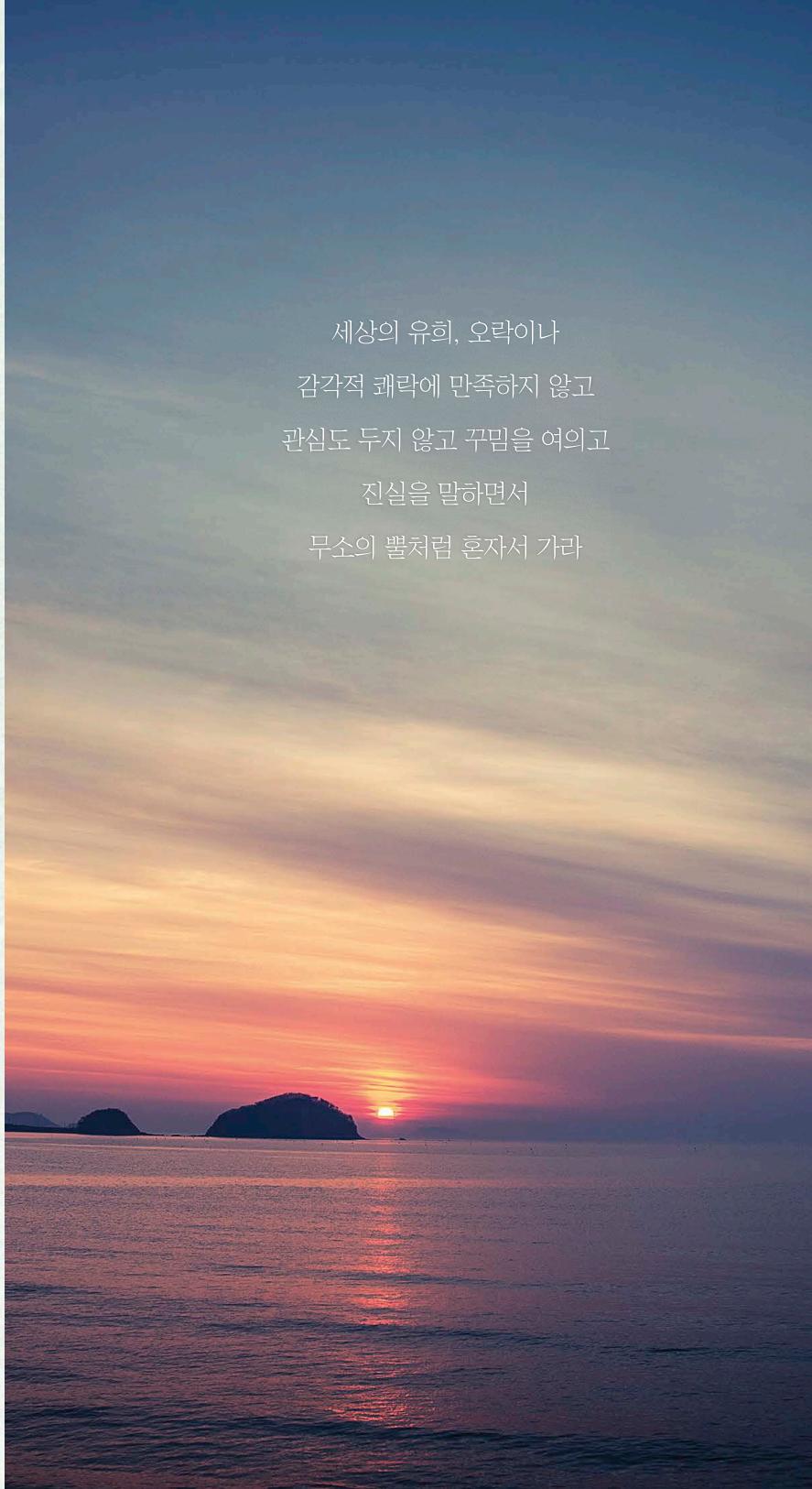
사고_{死苦}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누구든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죽음 자체가 가져오는 고통보다도 죽음으로 인하여 겪어야 하는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별, 육신으로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쾌락에 대한 미련, 재산과 명예에 대한 집착 등등 죽는 그 순간의 고통보다도 죽는다는 사실에 대한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괴고를 더 느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음은 생과 함께 윤회에 대한 고통을 가져옵니다. 불교에서는 무상한 것을 고라고 보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모두 행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껏해야 육신의 고통인 고고나 애착을 지닌 것이 허물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괴고를 느낄 때입니다.

그렇지만 생사의 큰 틀을 고로 인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윤회의 큰 틀을 바라보며 행고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윤회를 초월하여 열반을 염으려는 큰 이상을 지닌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제에 ‘성^聖’자를 붙여 고성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제는 고를 바르게 인식함에 의하여 열반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것은 신성한 것으로서 깨달음의 경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성제라 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고성제의 이러한 거룩한 의미를 모르고서 삶이라는 것에 애착을 가집니다. ‘뭐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는 것도 괜찮아. 인생이 꼭 괴로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런데 왜 불교는 인생이 괴롭다고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영원히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은 괴로움의 실체를 바로 알아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외면하고 즐거움만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고통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생로병사의 실체를 바로 인식할 때에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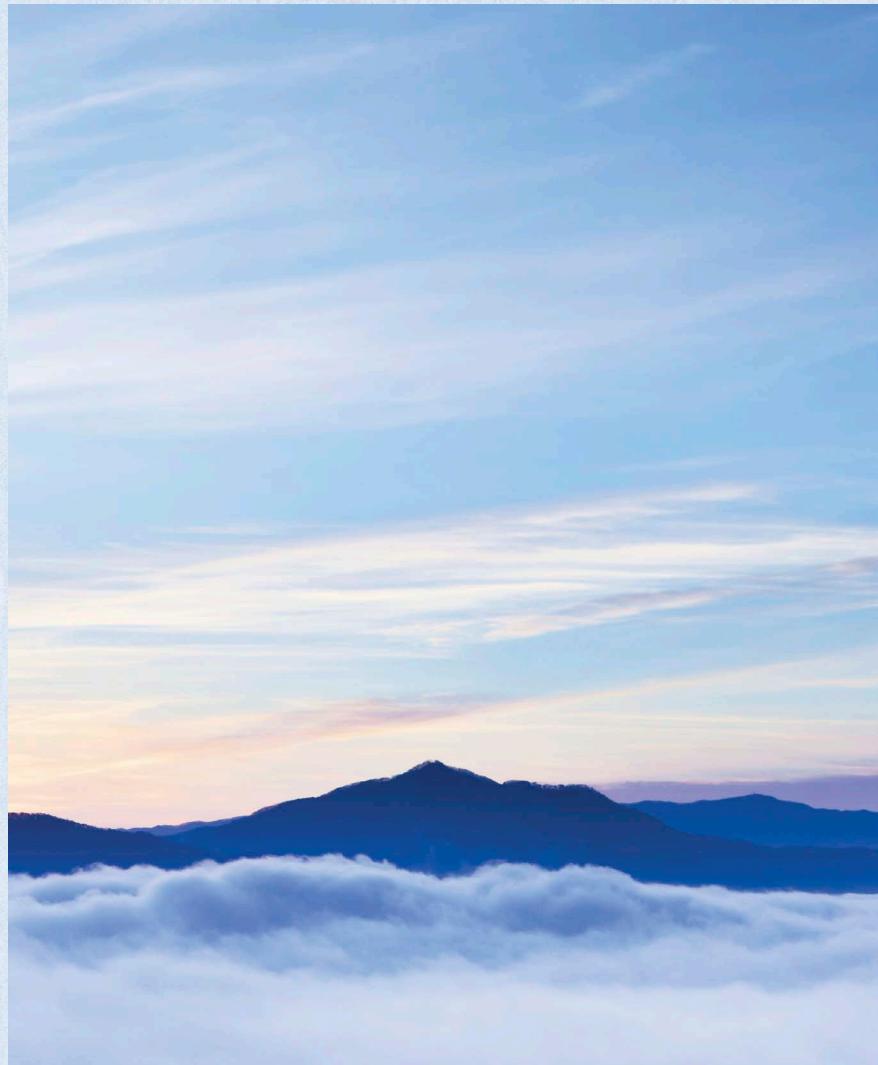
세상의 유희, 오락이나
감각적 쾌락에 만족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꾸밈을 여의고
진실을 말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기라



묵은해와 새해

법정

1932~2010
조계종 스님
길상사 창건
수필가



누가 물었다.

스님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고.

나는 대답했다.

“나는 오늘을 살고 있을 뿐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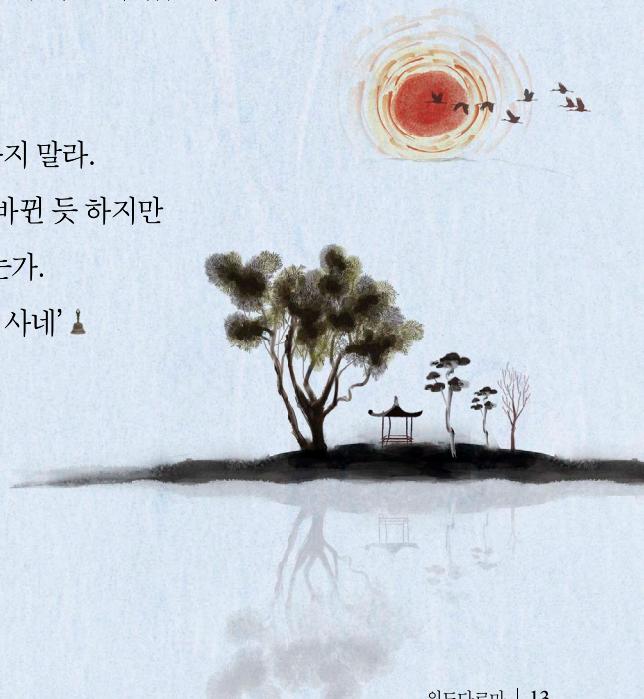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바로 지금이지 그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다음 순간을 내일 일을 누가 알 수 있는가.

학명 선사는 물었다.

‘묵은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라.
겨울 가고 봄이 오니 해 바뀐 듯 하지만
보라,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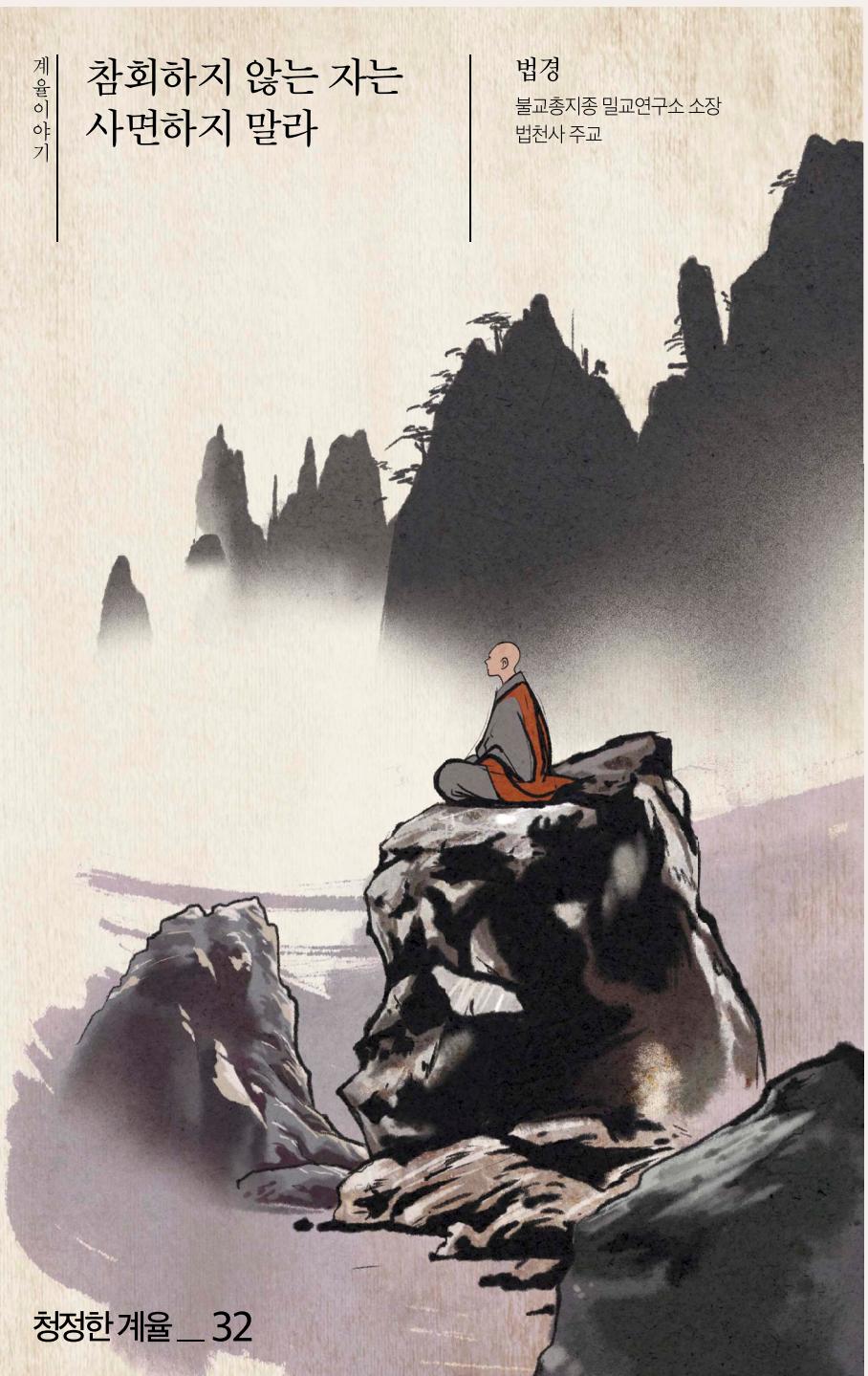
- 류시화 역음『법정 잠언집』



참회하지 않는 자는 사면하지 말라

법경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소장
법천사 주교



청정한 계율 _ 32

죄의 인정과 불인정

죄를 지은 사람이 법정에서 보여주는 행동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첫째는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죄를 달게 받겠다는 자세다. 뉘우치는 모습에서 선처가 이루어지고 정상참작으로 감형되기도 한다.

둘째는 처음에는 죄를 부인하다가 끝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경우이다. 버틸 때까지 버티어 보다가 명확한 증거가 나옴으로써 결국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유형이다. 죄질이 나쁘므로 정상참작이 될 수도 없고 형량이 감소될 리도 없다.

셋째는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이다. 속된 표현으로 오리발을 내미는 유형이다. 모르쇠로 일관할 뿐 아니라 법정 출석을 거부하며 아예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이로써 죄가 더 가중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자신의 변론 기회마저 포기하는 것으로, 마치 불나방이 자신이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불교에서는 이런 유형의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무명 중생을 말한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자신을 잘 아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잘잘못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결국 자신을 위해 바람직한 행동이고 바른 처신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잘 아는 것을 지혜라고도 표현한다. 이를 여실지
자심_{如實知自心}이라 한다. 이는 여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이를 일
체지지_{一切智智}라고 하고 보리심_{菩提心}이라고도 한다.

자신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마음이다.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 그 마음은 곧 공空하다, 무상無常하고
무상無相하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다. 즉 자신의 마음이 허공과 같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심_{自心}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한 글자로 불교를 심_心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죄의 인정 여부에 대해 불교의 율장에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

불교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죄를 짓고도 참회하지 않
으면 그것 또한 죄가 된다고 하며, 벌을 내린다. 승잔죄에 해당하며 따
라서 혼자 격리생활을 해야 하는 벌을 받는다. 이 경우에는 사면_{赦免}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거니죄계_{解舉尼罪戒}라 한다.

비구니의 승잔죄 : 해거니죄계_{解舉尼罪戒}

해거니죄계란 죄를 지은 비구니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참
회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사면해주지 말라는 계다. 이 계를 계외해거인계
界外解舉人戒라고도 한다. 잘못을 저지른 비구니가 인정_{認定}도, 참회_{懺悔}도 하지

않았는데 몰래 승단 밖에 나가서 그 비구니의 죄를 면하게 해주지 말라
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다. 그 인연담은 이러하다.『사분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에 위차라는 비구니가 대
중으로부터 자신의 죄가 드러났는데도 끝내 대중의 결정에 불복하고
참회도 하지 않았다. 이때에 위차 비구니의 도반인 투라난다 비구니
가 정분_{情分}에 얹혀 대중의 결정을 무시하고 승단 밖에 나가서 일부 대
중으로 모아놓고 위차의 죄를 풀어주는 결정을 해버렸다. 이로 말미
암아 모든 비구니들이 이를 비난하며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부처
님은 그들을 모두 불러 확인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였다.

“만약 죄를 지은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들로부터 죄의 대가로서 벌
칙이 결정되었는데, 그 비구니가 불법_{佛法}을 따르지 아니하고 참회도
아니하며, 대중들도 아직 그를 사면하지 아니한 줄 알면서도 정실에
따라 대중들에게 물어보기도 아니하고 승단 밖에서 사적으로 회의를
하여 죄를 풀어주면 이는 승잔죄가 된다”고 하셨다.

『남전율』에는 등장인물과 내용이 조금 다르게 전해지고 있다. 잔다가리
비구니가 승단 내에서 항상 남과 다투고, 입씨름을 일삼으며, 쓸데없는
논쟁으로 분란과 소란을 일으키므로 대중들이 회의를 열어 벌을 내리려
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편인 투라난다 비구니가 따로 대중들을 모아 놓고
벌주는 것을 풀어 주었다.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



며 참회도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해죄解罪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사적
으로 풀어주는 것은 승잔죄가 된다는 게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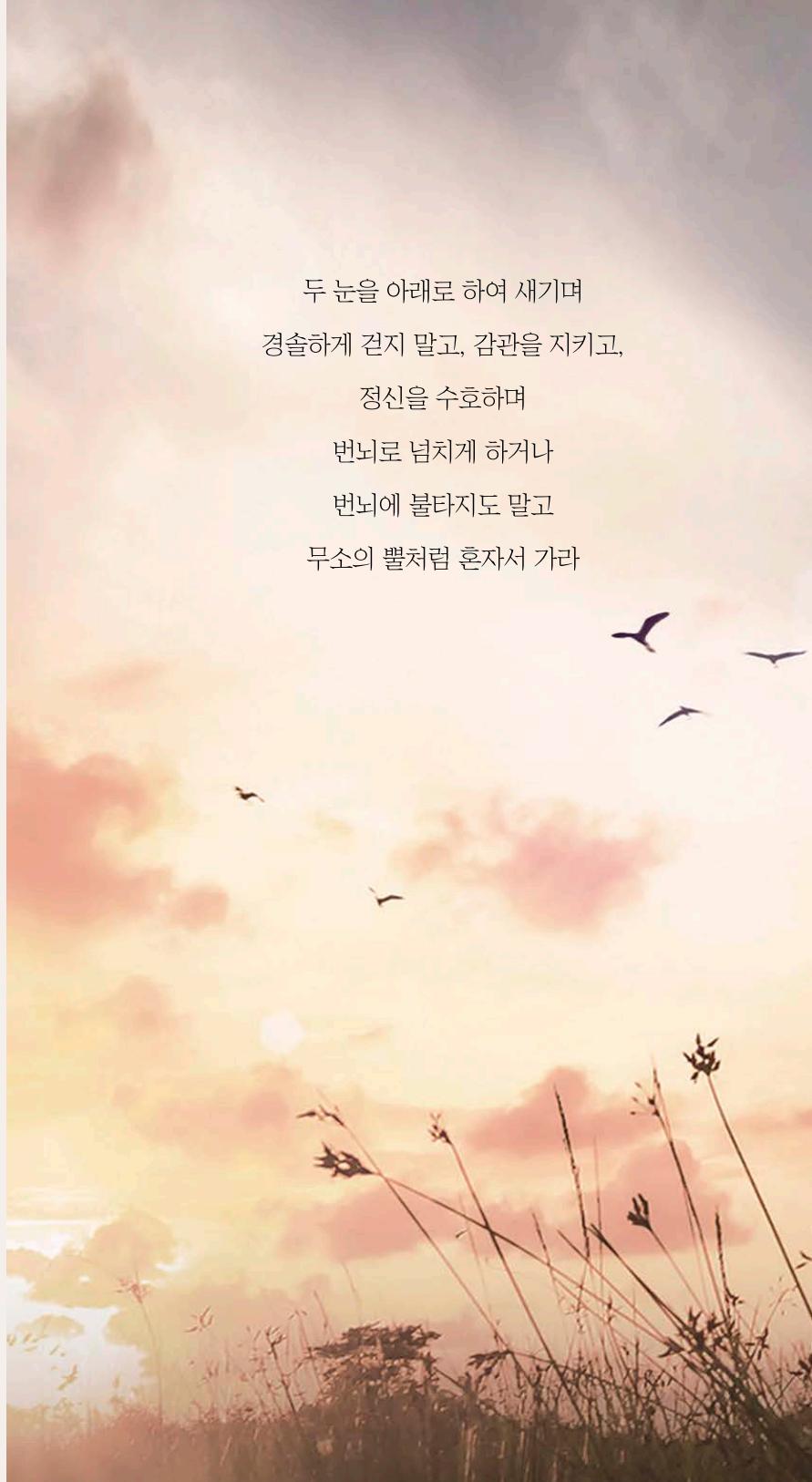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참회를 하지 않으면 자신은 승단에서 추
방되고, 이러한 자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풀어 주는 행위를 하는
자는 승잔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죄 지은 자를 벌로 다스리는 계를 제정한 이유는 무엇일
까? 승단의 화합과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불교라고 말하지만 무조건 잘못을 용서하거나 덮
어주지 않는다. 승단의 질서와 정법 유지를 위해 일벌백계하고 있다. ━



다음호에서 '염심을 가진 자의 음식을 받지 말라'는 염심수식계(染心受食戒)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눈을 아래로 하여 새기며
경솔하게 걷지 말고, 감관을 지키고,
정신을 수호하며
번뇌로 넘치게 하거나
번뇌에 불타지도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입안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갈증에 잠이 깨다. 머리도 아프고 속도 울렁울렁, 온몸이 천근만근이다. 이러고저라고 할 것도 없이 이불 뒤 집어쓰고 푹 잤으면 좋으련만 아닌 게 아니라 이럴 땐 목구멍이 포도 청이다. 찬물 한 잔을 마시고 어지러움을 달래가며 고양이 세수를 한다. 토막 난 기억을 퍼즐 조각처럼 훠맞추며 출근길에 오르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일이 열흘쯤의 무게로 다가선다. 후회는 앞서지 않는다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고, 마실 때는 왜 뒷일을 생각조차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음주의 후폭풍에 시달리며 생각한다. 아, 이제 시작인데…, 아직도 멀었는데…, 하고 말이다.

그렇다.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연말연시, 줄을 잇는 송년모임과 신년모임. 친구, 가족, 동료, 선후배, 이런저런 지인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다. 영화나 콘서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송년회 문화가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술로 시작해 술로 끝나는 송년회가 대세다.

술은 소심한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잔뜩 경직됐던 어깨도 풀어준다. 적당한 술이 심장병을 예방해주고 장수를 돋는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보고도 있다. 한 잔에 어색함이 사라지고 또 한 잔에 굳게 닫혔던 입이 열리고 또 한 잔에 흥이 돋우어진다. 그러니 잔치에 술이 빠질 리 없다. 기상천외한 건배사에 원샷은 기본이고 정통 폭탄주의 고전이라 불리는 회오리주에 고진감래주·홍익인간주·타이타닉주·소메리카노 등 다양한 폭탄주도 모자라 2차, 3차를 찍고 노래방까지 진출해야 열추 마무리가 된다.

이를 응원이라도 하듯 서울시에서는 12월 8일 밤 12시부터 내년 1월 1일 새벽 3시 30분까지 한시적으로 맞춤형 올빼미버스 2개 노선을 신설 운행한다고 한다. 연말 늦은 귀갓길 교통수단 확보가 어려워 발

을 굴렸던 시민들을 위한 배려라고는 하지만 어느 한편으로 생각하면 술에 너그러운 한국인들의 정서를 보는 듯해서 슬쩍 부끄러워지기도 한다. 그 늦은 시간까지 먹고 마시며 헤매고 다닐 일이 무언가 싫어서다.

뭐,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잘난 척 한다는 지청구를 들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처럼 술을 마실 줄 알고, 술자리를 좋아할 뿐 아니라 때때로 숙취에 시달리면서 끊긴(?) 필름을 이어붙이기까지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 분수없이 제 흥을 보는 푼수데기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애주가를 자처하는 내게도 12월은 버거운 달이다.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가야 할 모임도 많다. 다음으로 미루면 서운하다고 하고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성의가 없는 거겠지하면서 서운한 속내를 드러낸다. 이렇게 거르고 저렇게 잘라내도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열 번 안팎. 연말로 갈수록 주말 같은 때는 유명 연예인이라도 된 듯 겹치기 출연도 해야 한다. 그만큼 술을 마시는 횟수도, 양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술의 바다에 표류하는 난민이 된다. 적당히 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 술의 속성에 무릎을 끓고 악자지껄한 분위기에 휩싸인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 보자던 본질은 잊어버린 채 부어라 마셔라, 비몽사몽간에 어제 같은 오늘을 맞이하고, 올해 같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불가^{佛家}의 고매한 잡지에 이게 웬 홍두깨 같은 소리냐 하겠지만, 대부분의 연말 풍경이 이런 걸 어쩌겠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나름대로의 철칙을 지킨다는 것 뿐,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나 역시 그런 풍경의 하나가 되곤 하니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렇게 몽롱하게 시작하는 하루는 우울하다. 더 솔직한 고백을 하자면 어디로 도망이라도 치고 싶은 충동이 올 정도다. 치열하게 부딪치고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하더라도, 각을 세우고 날을 벼려야 얻어지는 많은 것들로부터 놓여나고 싶었다 하더라도, 취기와 치기로 잃어버린 시간은 썰물이 진 개펼처럼 허허롭기만 하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한 며칠, 세상과 담을 쌓아볼 생각이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태국(방콕)여행을 간다고, 휴대전화도 안 될 거라며 일찌감치 연락을 쳐 두었다.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 ‘방콕’이 그 ‘방콕’이었느냐며 어이없어 하겠지만 꼭 어디 멀리로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닐 터. 나를 버릴 수 있는 곳, 나를 찾을 수 있는 곳이면 한 평이 채 안 되는 내 골방이라도 감지덕지다.

자작자수^{自作自受}라고 했다. 술뿐 아니라 세상살이가 다 그렇다. 지나치니까 탈이 된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라면 나쁜 결과 또한 자신의 뜻이다.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건 욕심일 뿐이다.

시간의 경계를 허물고 설렁설렁, 청량한 바람에 머리를 씻으며 한결 가벼워진 몸, 정갈해진 마음으로 일상의 어지러움을 좀 정리해 보노라면 자작자수_{自作自受}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인과법’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은 인연의 공덕은 없어지지 않고, 깊은 산속 깊은 바다 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연기_{緣起}의 법칙_{緣起法}, 인과법이라고 들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그것이 생겨날 원인과 조건 속에서 인연에 따라 생겨난다고 하여 인연법_{因緣法}이라고도 한다는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므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으며, 이것이 멀하므로 저것이 멀한다’는 형식으로 표현되는 형이상학적인 경지까지는 차치_{且置}하고.

인과법을 쉽게 풀어보면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말이 될 것이다. 사필귀정, 인과응보, 당연지사, 부메랑의 법칙, 뿐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도 인과법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평범한 진리가 도처에 있건만 하다못해 연말연시,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송년·신년모임에 치어허덕이고 있으니 너나 없이 참 딱할 수밖에.

‘자정기심’_{自淨其心}, 스스로 마음을 길들여 참고 이겨내는 것이 부처님처럼 사는 길이라는 가르침에 이르기 위해 수많은 수행자가 구도_{求道}의 길을 떠난다. 선택한 가난은 가난이 아닌 행복이고, 선택한 난행고행_{修行苦行}은 괴로움이 아닌 축복이라는 말씀을 지팡이 삼아서 말이다.

길 위에 선 그들을 바라보며 잠시 그들의 몸짓을 흥내 내어 보는 시간,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선택한 잠깐의 단절 역시 참된 행복과 축복을 찾아나서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해 본다. ━



독수리

Aegypius monachus

정옥식

조류학 박사
환경생태연구원

“북서쪽으로부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심 상공에는 영하 30도 이하의 강한 세력의 찬 공기가 자리 잡고 있어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올 것이 왔다. 독수리다. 리포터가 말한 찬 대륙고기압의 중심에 놓인 얼어붙은 땅 몽골에서 매서운 찬 바람에 떠밀려 먹을 것을 찾아 독수리가 왔다. 하긴 우리가 초겨울 추위에 긴장할 때쯤 이면 몽골은 이미 영하 30도 아래에 머문 지 오래일 것이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얼어붙고 며칠을 짊은 끝에 찾아낸 먹이는 얼음보다 단단할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과 달리 날쌔고 용맹스러운 이미지는 독수리에겐 없다. 사냥을 하지 않고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사체를 주로 먹기 때문이다. 사력을 다해 달아나는 먹이를 앞지를 날렵한 날개도, 가죽을 뚫는 날카로운 발톱도 독수리에겐 없다. 대신 멀리서도 죽은 먹이를 찾을 수 있는 후각과 먹이를 찾아 나선 동료들의 움직임을 먼 거리에서도 엿볼 수 있는 시각을 지녔다. 그리고 부패균에 대한 강한 내성을 지녔으며 날개 짓 없이도 긴 시간 상공을 배회할 수 있는 긴 날개를 지녔다.

200만 년 전부터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독수리는 북반구의 구대륙 전역에 걸쳐 분포한다. 스페인, 불가리아, 터키를 비롯한 유럽 남부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등 목축업이 성행하는 곳에서 주로 번식한다. 사계절을 한 곳에서 머무는 유럽 지역의 무리와는 달리 중앙아시아에서 번식하는 무리는 미얀마, 중국, 인도 북부 그리고 우리나라 등 남쪽으로 이동하여 월동한다.

2000년 여름으로 기억한다. 몽골 현지 조사 때 독수리 번식지 근처에서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를 빌려 지낸 적이 있었다. ‘소뜸발짜’라는 주인아저씨에게는 게르가 두 동이 있었으며 그 중 하나를 우리에게 빌려 주었었다. 어느 날 주인아저씨는 달구지 가득 잔 나뭇가지를 가져 오셨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긋 웃어주는 얼굴도 외면한 체 어디서 구했냐고 통역을 통해 물었더니 근처에서 가져 왔다고 하셨다. 사막이나 다를 바 없는 초원에서 나무를 구해온 게 의아했는데 역시나. 아무리 나무가 구하기 힘들더라도 독수리 둉지를 훼손해가면서까지

나무를 가져와야 하냐고 말이 통하지도 않는 아저씨에게 다그쳤다. 이방인에게 늘 웃어주던 아저씨는 찡그린 나의 얼굴에 당황한 나머지 물끄러미 통역이 전해주는 말만 기다리고 있었다. 통역은 나의 말을 아저씨에게 전하지 않고 곧바로 나에게 대답을 해주었다. 이건 독수리 등지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반나절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근처’라는 표현도 우리와 다른 개념으로 인한 오해였다. 반나절이나 소요되는 거리 정도는 몽골 사람들에겐 아주 가까운 측에 속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오해할 만도 한 것이 독수리의 등지는 나무 가지로 만들어 진다. 나뭇가지를 쌓아올린 높이 만해도 2m는 족히 넘고 직경은 2m에 육박한다. 큰 것은 높이와 직경이 3m를 넘는 것도 있었다. ‘등지 하나면 며칠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라고 간밤에 추위에 시달린 일행이 군침을 삼킨 적이 있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나뭇가지가 사용된다. 상황과 농담이 오해를 만든 것이였다. 연유도 듣지 않고 화부터 내어 주인아저씨에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보다 바로 옆의 독수리 등지를 그냥 두는 게 궁금해졌다. 이유를 물었더니 등지는 독수리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물려서 독수리가 살아갈 곳이기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넘쳐나는 물자에 에너지 걱정 없는 우리가 아닌, 물을 길으려 하루 이틀은 꼬박 소요하고, 나무나 석탄이 없어 소똥을 태우고, 나무를 찾으러 하루 길을 떠나야 하는 그들이 하는 말이라 그 마음 앞에 숙연해졌다. 어쩌면 물질이나 편리함에 대한 욕심이

없는 그들이 관대하기라서 보다는 자연의 귀중함을 깨달은 데서 온 현명함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독수리를 찾아 초원을 마구 달리자면 통역이나 현지인들은 길로만 다니길 원했었다. 많은 차들이 다녀 울퉁불퉁한 길을 가느니 풀이 난 곳을 달리는 게 훨씬 승차감이 좋았고 모두가 평지이므로 굳이 불편하게 앞차가 지나간 자국을 따라갈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은 달랐다. 길을 벗어나서 달리면 길은 넓어지고 그 만큼 풀이 죽는다는 것이다. 풀은 그들에겐 생명인 것이다. 풀을 소나 양, 말이 먹고 그것을 사람이 젖이나 고기로 이용하는 것이였다. 독수리 또한 병들거나 다쳐서 죽은 가축을 깨끗이 청소해주어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주므로 몽골인들에게 소중한 자원인 것이다.

올 겨울도 우리나라를 찾은 독수리는 먹이를 찾아 한반도를 배회할 것이다. 분명 먹이를 찾아내려 앓는 모습은 일부 인위적 먹이를 공급하는 곳이 아니면 보기 힘들 것이다. 그저 산봉우리 위를 빙글빙글 서너마리씩 모여서 돌다가 다른 곳으로 쓸쓸히 사라지는 뒷모습만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수리를 생각하니 올 겨울 더 춥게 느껴진다. ━



선^善한 사람

덕현

법천사 전수



선^善은 착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착하다는 뜻 외에도 좋다, 올바르다, 어질다, 정당하다, 높다, 많다는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또 도덕적 기준에 적합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善의 용어가 불교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대체로 훌륭하다, 뛰어나다, 성실하다, 부지런하다는 등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한 용어로서 십선^{十善}, 선법^{善法}, 선남선녀^{善男善女} 등이 있습니다.

『불교총전』에 보면, ‘선은 몸이 편안하고, 부지런하고, 용기를 더 하며 권속이 많고 삼도를 떠나며 모든 선은 악을 그치게 하고 번뇌를 얹으려 하는 것’이라 하고, ‘모든 선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하고, 아름다운 선은 능히 싸움과 다툼을 없애며, 인천^{人天}이 기뻐하며, 마땅히 말의 허물을 버리고 모든 선을 닦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불교에서는 한 가지 선심^{善心}을 닦으면 백 가지 악을 부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선심이 비록 작더라도 계속하여 선심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작은 물줄기가 큰 강물을 이루듯이 작은 힘이 모이면 자신이 행하는 작은 선행은 큰 행복을 이룹니다. 가족을 위해 신발을 정리한다든지,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 한다든지, 약속을 잘 지킨다든지, 깨끗하게 청소한다든지……

그리고 선은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천이 없는 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행동과 몸이 따라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은 바르고 입은 고운 말을 사용하며 생각이 건전하고 올랄라야 합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고 선업을 지으면 남도 행복해지고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따라서 선은 행하면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남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을 포함한 가족이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가족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고 우리 가족만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하고 무미건조 하겠습니까. 무인도에 우리 가족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남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기가 각박해져서인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져야 하고, 내가 앞서야 하고, 매사 내가 먼저 이어야 하고,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하고……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까지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뒤처지면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천천히 여유 있게 주위를 둘러보며 가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느리게 살며 느끼는 행복이 빠르게 지나치는 행복보다 낫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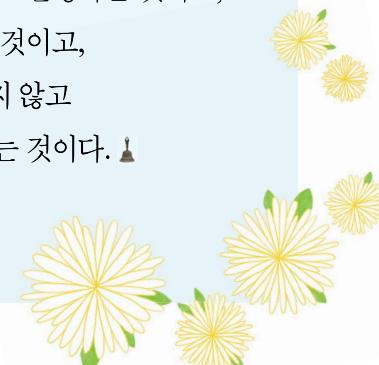
우리 모두 착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내가 선^善하고 행복하면 사회가 선하고 따뜻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하고 착하다고 해서 손해 보는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불자가 지켜야 할 선법^{善法}을 다섯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가지 착한 법

첫째는 덕망과 신의를 항상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남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지 않고.
셋째는 몸과 행동을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고,
넷째는 법을 항상 즐기는 것이고,
다섯째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항상 구제하는 것이다. ━

- <미륵본원경>



모르는 줄 모른다

원효(元曉)
신라의 승려



모르는 줄 모른다

覺自迷者
非大迷矣
知自闇者
非極闇矣

각자미자
비대미의
지자암자
비극암의

자신이 어리석음을 깨달은 자는
크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사리에 어두움을 아는 자는
아주 어두운 것이 아니다.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

일이나 공부를 좀 해 보면 알게 된다. 모르면서 아는 줄 아는 게 문제임을. 모르면서 아는 줄 알면, 무엇을 모르는지 알려고도 않는다. 모르면서 아는 줄 알면, 다른 이와의 소통과 공감이 잘 될 리 없다. 그러니 문제다. 원효에 의하면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다. 어리석은 줄 모르고 사니,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모르는 줄 모르고 사니, 다른 존재와의 관계가 힘겨울 수밖에. 그러니 어리석은 줄 아는 게, 모르는 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알아차리고 받아들여야 새 삶을 열어 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원효는 수많은 저술을 집필했다. 알려진 것은 100여 종 240여 권, 현재 전해지는 것은 20여 종 20여 권이다. 대부분 불교경전에 대한 주석서인데,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를 비롯한 원효의 주석서가 동아시아에서 남아시아의 불교를 수용해 동아시아 불교를 정초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다른 저술들과 달리 『보살계본지범요기』는 특정 경전에 대한 주석서가 아니다. 보살계菩薩戒, 곧 대승불교의 계戒를 지키는 것, 그 참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원효가 직접 논술한 책이다. 그래서 『지범요기』는 원효의 육성이 들리는 듯한 저술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원효가 『지범요기』를 통해 가장 경계한 것 중의 하나가 ‘자고심’自高心, 곧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다. 계를 형식적으로 지킨다 하여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가진다면, 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불법을 좀 안다고 하여 나와 남을 차별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불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계를 지키고 불법을 따르는 참뜻을 어기게 됨을 논한 것이다. 이처럼 『지범요기』는 불교에 대한 이론적 성찰이면서 불교계에 대한 현실적 비판으로 읽힌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어떨까. 성직자라고 해서, 공직자라고 해서, 지식인이라고 해서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할 공산이 크지 않을까.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그 참뜻을 자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전을 읽는 참뜻은 뭘까.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우리 자신을 알아차리기 위함인 것 같다. 현대를 사는 우리의 자고심을 경계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다. ━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순성필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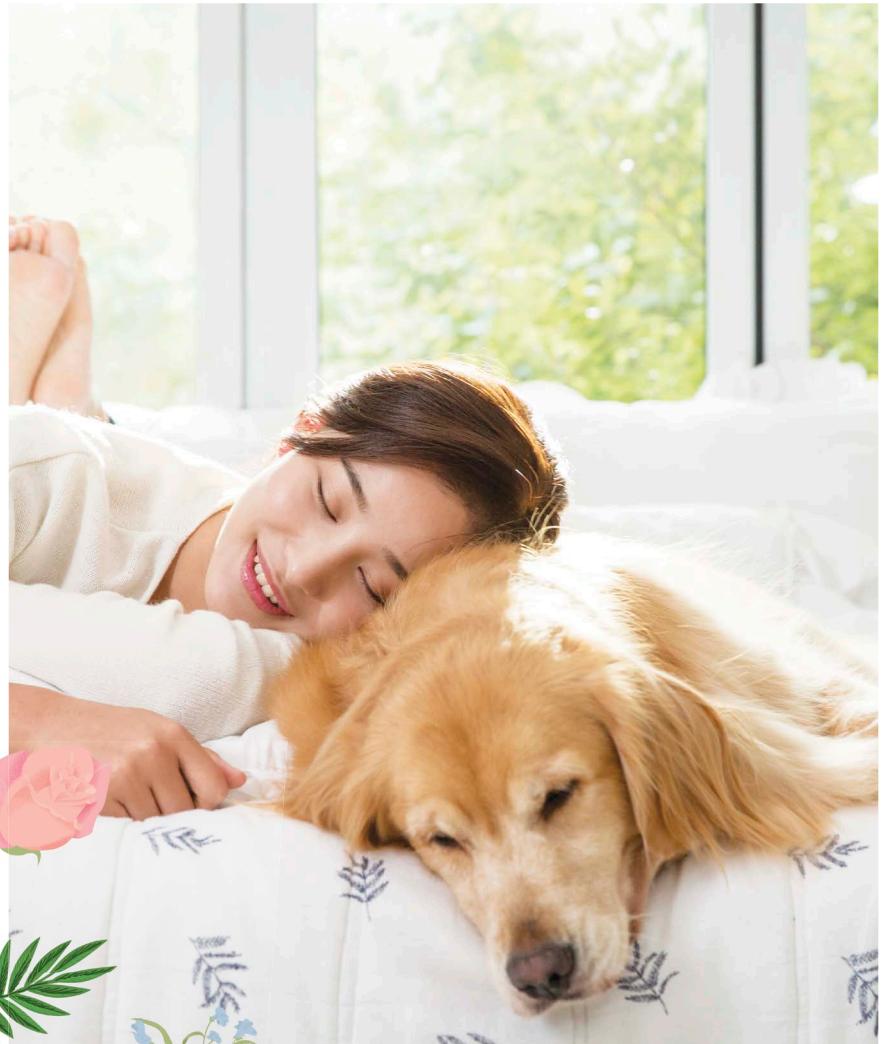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사랑으로 키우다

권도형

닥터펫동물의료센터 원장
수의내과학 석사
수의사



강아지를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은 이 작은 생명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에 궁금증이 많습니다. 작고 꼬물거리는 생명을 내 가족으로 맞이하여 평생 함께할 생각에 많이 들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지’ 항상 궁금해 합니다.

하지만 ‘잘 키우기’에 앞서 어떤 마음으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왜 강아지를 키우게 되셨나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키우게 되셨나요? 아니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점이 좋아서 강아지를 키우려고 생각하시나요?

길을 다니다보면 정말 흔하게 ‘애견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견샵 작은 유리장 안에서 창밖만 보고 있는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워서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강아지를. 이 작은 생명체를 카드결제로 ‘구입’하고 싶으신가요?

한국에서는 정말 쉽게 강아지를 만나볼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구매’까지도 특별한 절차 없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나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외관상 ‘이쁘다’라는 이유로 또는 ‘간혀 있는 것이 불쌍하다’라는 이유로 덜컥 강아지를 입양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댁에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 옆집 친구는 강아지 키우는데, 우리도 키우면 안돼요?’라고 말을 한다면, 자녀를 위해 ‘강아지를 한 마리 사줄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 키우기’란 결코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생명을 키우기 전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생명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하루에 얼마나 있는지?’
‘사랑은 들판 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되는지?’

‘작은 생명이 아플 때에 병원을 데리고 가고 치료할 만큼의 경제적 여유는 되는지?’

‘내가 생각하는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교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이외에 키우면서 겪게 될 수 있는 여러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저 ‘사와서 데려다 놓으면 알아서 크는 동물’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알맞은 음식을 챙겨줘야 하구요, 아직 대소변을 못 가리는 아기들은 아무 곳이나 대소변을 보기 때문에 제때 잘 치워주실 수 있어야 하구요, 매일매일 산책도 나가주셔야 합니다.

집에 있는 가구들을 물어뜯을 수도 있구요, 집에 있으면서 특히 밤에 잘 때 깅낑거리거나 짖기도 합니다. 아파트 충간소음으로 민원을 받기도 하고, 바닥에 떨어진 것을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아픈 곳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아야 합니다. 털손질도 자주 해주셔야 하고, 발톱도 길지 않게 자주 다듬어 주셔야 합니다. 양치질도 시켜주셔야 하고, 목욕도 시켜주셔야 하고, 귀도 한번씩 청소해 주셔야 하죠. 건강하게 키우려면 예방접종도 꾸준히 해주셔야 한답니다. 이 외에도 신경 쓰실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감내하실 수 있다는 각오가 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생명에게 최선을 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긴다면, 강아지를 입양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이 후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서적인 유대감도 깊어지고, 드디어 ‘가족’이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버림받는 ‘유기견’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버리기 위해’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강아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키우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처럼 강아지를 키우면서 생기는 곤란한 상황을 연재를 통해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음호는 ‘강아지 제대로 알고 키우자’를 연재합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듣게 될 때

법상

목탁소리 카페 지도법사
원광사 주지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동의하기 힘든 평가를 내린다면,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아주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 그 부정적인 말의 위력에 굴복당한 채
그런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있는 의식으로써
그 말이 그저 아무 힘도 얻지 못한 채
그저 흘러가도록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나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그의 단편적인 관점일 뿐이며,
그 말은 진실도 거짓도 없는 중립적인 에너지일 뿐이다.
그 말이 힘을 가질지 말지는,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언제나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별 의미 없이 쉽게 내뱉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언제나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를 그 말에 자신을 구속시키기를 서슴지 않는다.
화가 나서 화김에 내뱉은 “재수없게 생겼어”라는
학창시절 친구의 말 한마디를 나이 40이 넘어서까지 붙잡고
실체화하며 구속당한 채 정말 자신을
재수없게 생긴 사람으로 믿어 왔던 분을 보고
구업이라는 업력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새삼 느낀 적이 있다.

말의 힘이란 이와 같다.
자신이 그 말에 힘과 의미를 불어 넣는 순간
그 말은 살아 움직이며,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실체적 에너지로 바뀌고 만다.
언제나 말의 주도권을 굳건히 자기 안에 두고 살라. 🌟

-『날마다 해피엔딩』

아름다운 황금사원

김단비
여행작가



▲ 황금사원_낮

어느덧 인도에 도착한지도 보름 즈음이 되어갈 무렵, 나는 세 번째 여행지인 인도의 북서부 지역을 향해 움직이기로 했다. 발걸음을 향한 곳은 특유의 아름다움으로 인도내외에 이름을 알린 황금사원이 자리한 도시, 암리차르였다.



▲ 황금사원_저녁

황금사원은 세계 제5위의 종교인 시크교의 본산이며 사원의 모습이 황금빛으로 빛난다 하여 많은 이들에게 황금사원으로 불리게 된 곳이다. 긴 시간을 이동해 직접 마주한 황금사원은 가히 그 명성에 걸 맞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수도인 델리에서 10시간 가량 기차를 타고 올라가 도착한 도시 암리차르는 지역적으로 북서부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찌는 듯한 더위를 자랑했다. 더군다나 내가 도착한 시기에는 도시 정비 공사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새로 깔린 아스팔트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가 마구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도시의 열기와 2주간의 여행 동안 무거워진 배낭과의 힘겨운 사투를 벌이던 나는 간신히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한결 여유가 생긴 나는 황금사원이 신도 및 방문객들에게 24시간 개방한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그곳을 향했다.

암리차르는 시크교도들의 왕국이라는 별칭이 어울리는 도시답게 거리 곳곳에서 높은 터번을 맨 시크교도들을 만날 수 있었다. (머리에 맨

터번과 깎지 않은 수염과 머리카락이 시크교도들의 큰 특징이다.) 아니 이 도시의 대다수가 시크교도여서 오히려 터번을 매지 않은 사람이 눈에 뛸 정도였다. 터번의 여러 가지 색상 또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파랑, 빨강, 분홍 등 그 색상이 셀 수 없이 다양해 의복을 구경하는 일도 상당한 즐거움을 주었다. 이후 황금사원에 도착한 나는 규칙에 따라서 신발을 벗고 입구 앞에 마련된 물에 발을 씻은 후, 머리를 스카프로 가린 채 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시크교 사원에서 신발을 벗고 입장하는 이유는 신분계급인 카스트나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만인이 모두 평등하다는 사상을 따르기 때문이다. 15세기 인도에서 생겨난 종교의 가르침으로는 상당히 혁신적이라는 생각을 하며 걷던 나의 눈에 서서히 황금사원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 시크교인 호위병

황금사원은 확실히 아름다웠다. 아름답다는 단어가 아주 잘 어울리는 곳이었다. 사원 전체를 금으로 덮은 듯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햇빛을 받아 빛나는 위용부터가 남달랐다.

그러나 황금사원 아름다움의 백미는 해가 진 후 부터 시작되었다. 사원 주위를 감싼 호숫가에 일렁이는 물결과 그에 비친 황금사원의 모습은 아름다움을 넘어선 어떠한 고요를 생성했다. 사원 주위를 감싼 호수 주변에는 늦은 저녁시간 임에도 명상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나도 호숫가를 따라 천천히 걸은 뒤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물결에 비친 빛나는 황금사원의 실루엣이 타국에서 온 여행자의 마음을 가만히 진정시켜 주었다. 나는 황금사원에서의 그 고요가 좋아 암리차르에 머무는 동안 줄곧 사원을 방문하곤 했다.

시크교도들에 시크교도들을 위한 사원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실상 그들이 따르는 가르침처럼 누구에게나 열린 평등한 공간이라는 점도 아주 마음에 들었다. 종교 간의 다툼이 많은 요즈음 많은 종교들이 이러한 평등과 박애 정신을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다.

인도에 방문한다면 아름다움 속에 평등과 박애 정신이 존재하는 황금사원에 꼭 들러보기를 추천한다.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

법시공덕

법수연
화음사 전수

법시공덕

(종조 법설집 p.161)

부처님이 이르시되 고통 있는 사람에게
현자법을 설하여서 교를 믿게 인도하면
경을 설한 인연으로 오복 덕이 있으니라
일은 살생 하는 이가 살생하지 않는고로

장수함을 얻게 되며

이는 투도 하는 이가 도적하지 아니하고
능히 보시 하는 고로 대부함을 얻게 되며
삼은 법을 듣는 이가 화기 있는 안색으로
기쁜 마음 나는 고로 단정함을 얻게 되며
사는 법을 듣는 이가 불법승을 공경하게
받들도록 하는 고로 명칭멀리 드러나며
오는 법을 듣는 이가 심심법과 묘지혜를

깨치도록 하는 고로

총명하고 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인연으로 법을 설해 행케하면
설경자의 복덕성이 한량없는 것이니라

(현자오복경)



낚시를 즐기는 각자님과 사는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차차 불공을 하다 보니 살생의 과보가 무서워졌습니다. 어느 자성일, 낚시를 가려고 준비하는 각자님에게 “오늘 자성일인데 나는 절에 가고 당신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각자님이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절에 안 가면 되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려서 부처님께 서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각자님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절로 향했습니다. 사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각자님이 낚시하러 나가면 누군가가 보살님의 가족들에게 달려와 뒷덜미를 낚아채는 느낌이 들곤 했답니다. 평소에는 해가 지고 나서야 돌아오던 각자님이 그날은 일찍 돌아왔답니다. “오늘 절에 안 갔어?” 하기에 “안 갔죠.”라고 했더니 이제 낚시를 그만 두겠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물에 빠져서 정말 큰일 낸 했던 거예요. 다행히 발만 다쳐서 응급처치를 하고 왔답니다. 한 사람의 업이 가족 모두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법을 보살님이 느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그 공덕으로 살생업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도의 마음은 불만족하여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우주자연의 원리인 ‘도로 돌아 불어옴’副 도로 돌아 돌아감_貧을 안다면 투도의 마음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보시의 진정한 과보를 들은 자가 보시행을 행하면 설한 자에게도 대부의 과_果가 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기보다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본연의 속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수승한 법을 공부 해보면 정말로 베푸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재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초파일, 해탈절, 창교절, 같은 큰 행사에는 진정한 보시심으로 누구나 편하게 동참할 수 있게끔 무상함을 비치합니다. 무상함을 정리 하다보면 동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동전을 잡는 순간 감사의 마음과 함께 만 배의 공덕이 있기를 서원하게 됩니다. 회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게 된다면, 동전을 편한 마음으로 보시 할 수 있을까요? 선대조상과 자손을 위하여 보시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겠지만, 동전을 넣는 분의 마음은 더욱 더 절절했을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보시한 만큼 과^果를 받음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느 날 공식시간 직전, 절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보살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공을 마친 다음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궁금한 마음과 걱정이 되는 마음에 강도회사와 차별회사를 하면서 ‘부처님, 저 보살님의 어떤 질문에라도 바른 답을 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라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날 공식시간에 함께 공부한 경이 바로 161쪽 법시공덕입니다. 법시공덕의 내용을 풀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불자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 제도시키고 싶은 사람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 미리 불공을 하고 얘기를 하면 좀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셋째, 제도가 되었을 경우, 그 사람의 숙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불공을 해주면 마치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는 이치가 됩니다.

이렇게 제도시키기 위해 발심한 원력의 공덕이 구경에는 나의 복덕통장에 무궁하게 쌓이게 됩니다.

약속한대로 공식시간이 끝난 후, 보살님과 마주앉는 순간 “전수님 설법시간에 답을 얻었어요.” 라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연인즉, 아끼는 친구를 제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는 게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별식을 먹고도 가까운 사람에게 맛을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법인데, 이렇게 좋은 법약은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충지종과 얼마나 긴 인연의 끈을 가지는가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일단 인연의 끈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인 두 보살님이 있습니다. 늦게 충지종을 만난 보살님은 자신을 제도 시켜준 보살님에게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덕분에 용맹정진으로 이겨내고 있어. 친구보살이 아니었다면 나 벌써...”라며 감사의 인사를 한답니다. 친구관계지만 인도 해 준 친구를 존경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이렇게 법담을 나눌 수 있는 도반이 있다면 ‘참 행복한 인연’이라 이름 짓고 싶습니다.

무술년에는 오세대제도 실천으로 불자로서의 의무 다하여 참 행복한 인연들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합장 발원합니다. ━



첫 마음

지현

단음사 전수

첫 마음

- 정채봉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 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온 날의,

상쾌한 공기 속의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 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 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땁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다시 새로운 일 년을 선물 받았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새 날, 새 달, 새해는 언제나 선물 아닐까?

늘 첫 마음과 같은 설레임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고,

어김없이 흘려보낼지언정 잘 해 볼 것이라는 다짐도 한다.

아주 찰나의 순간에 오늘이 어제가 되고,

내일이 오늘이 되는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나날이 첫 마음을 간직하기 어찌 쉬우랴~

하지만 2018년 1월, 새로운 일 년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아든 지금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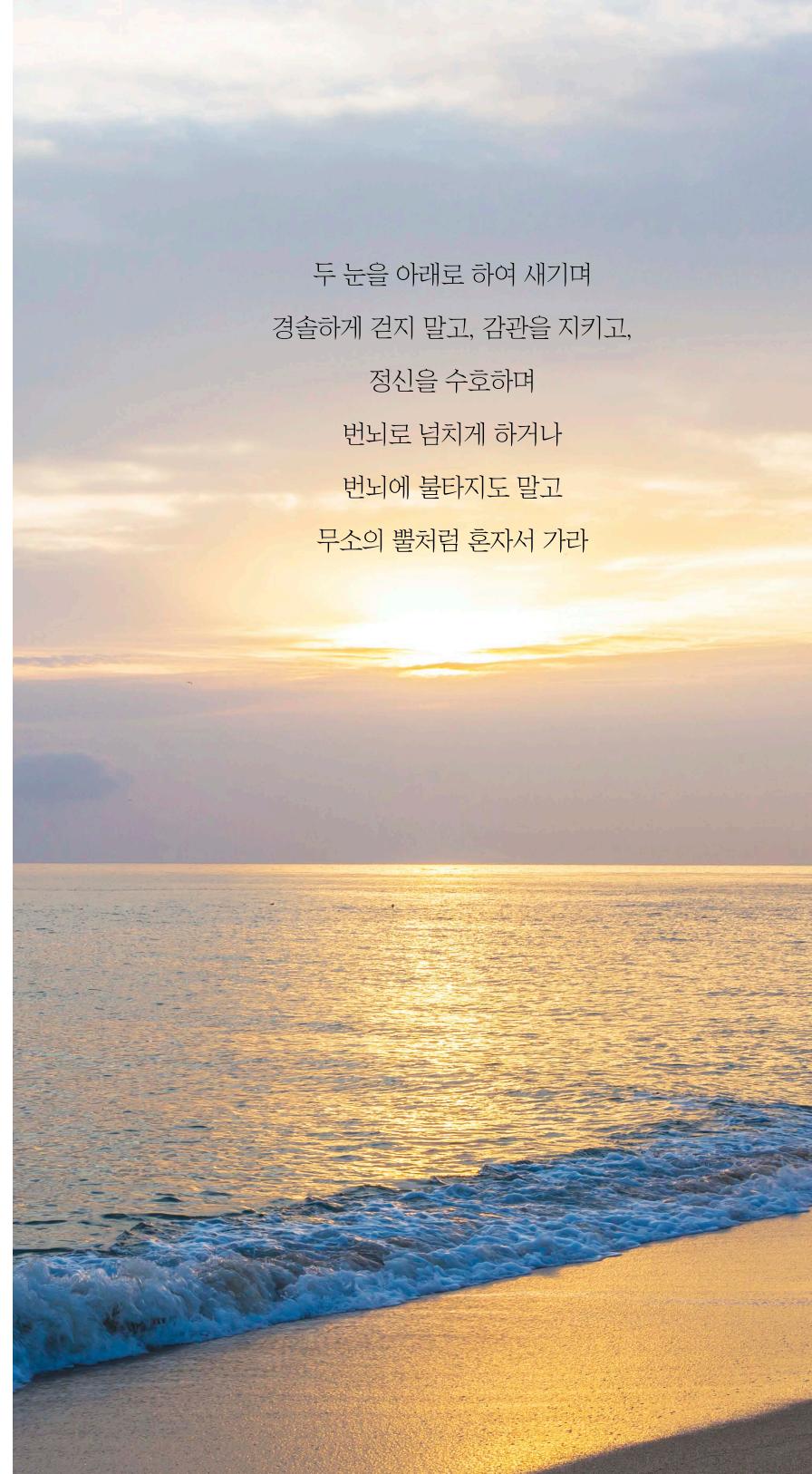
자기 성찰이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붙이고

잠시라도 자신이 마주했던 첫 마음을 떠올려보는 것이

선물에 대한 예의가 아닐련지.....

부디 가슴 부풀려 희망적으로 살아낼 것이며, 건강할 것이며,

맘껏 행복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새해 선물에 대한 화답을 건넨다. ┌



두 눈을 아래로 하여 새기며

경솔하게 걷지 말고, 감관을 지키고,

정신을 수호하며

번뇌로 넘치게 하거나

번뇌에 불타지도 말고

무소의 뿐처럼 혼자서 가라

네 사전에 작심삼일은 없다 -사철베고니아



이태용
원예 교육가

✳️ 한결같은 작심삼일

초등학생 시절, 방학이 되면 어김없이 생활계획표를 짰다. 하루의 시작은 운동하고 아침밥 먹기. 그리고 이어지는 공부, 휴식, 텔레비전 보기, 독서… 길 것만 같던 하루가 금세 채워진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은 생활계획표를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나의 방학 생활은 늘 예상대로 계획표와 관계없이 돌아갔다. 불가피한 이유가 하나둘씩 생기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생활은 계획표와 달라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못 지키는 나를 볼 때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작심삼일_{作心三日}이냐.”

작심삼일은 한자 뜻 그대로 ‘굳게 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는 뜻이다. 이 말에 관한 일화가 조선시대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한번 먹은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인가 보다.

✳️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베고니아

꽃시장에 가보면 생김새는 다르지만 똑같이 베고니아라 불리는 식물들을 있다. 조그만 꽃에 만질만질한 잎을 가진 베고니아(사철베고니아), 꽃이 좀 더 크고 꽃잎이 여러 겹인 베고니아, 꽃은 없고 넓적한 얼룩무늬 잎만 있는 베고니아.

이 세 종류는 면 조상은 같지만, 모두 고향이 다르다. 사철베고니아는 브라질의 원종을 중심으로, 구근베고니아는 남미의 안데스 산맥에 분포한 원종을 중심으로, 그리고 렉스베고니아는 인도의 원종을 중심으로 개량되었다.

＊ 이런 효자가 어디 있어

다양한 베고니아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베고니아는 뭐니 뭐니 해도 사철베고니아이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도 한다. 보통 꽃들은 활짝 피었다가도 며칠 혹은 몇 주를 못 버티고 시들어 버리는데, 사철 베고니아는 작고 예쁜 꽃을 한 번 피우면 시들 줄을 모른다. 겨울만 빼고는 늘 꽃을 피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꽃이 시들지 않다 보니 사철베고니아는 도시 공간을 꾸미는 용도로 많이 쓰인다. 커다란 화분에 심겨 건물 앞에 놓이기도 하고, 벽 걸이 화분이나 공중 화분에 심겨 밋밋할 수도 있는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 주기도 한다. 때로는 커다란 탑이나 동물 모양 같은 조형물에 형형색색의 오브제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니 도시 공간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사철베고니아는 이만저만한 효자가 아니다. 언제 어디서든 오랫동안 예쁜 꽃을 피우고, 비와 바람, 뜨거운 햇볕도 잘 견디니 더 이상 바랄게 없다.

사철베고니아의 영어 이름 ‘Perpetual begonia’가 바로 그런 사실을 증명해 준다. ‘Perpetual’이 ‘끊임없이 계속되는’이라는 뜻이니, 이 이름 속에는 ‘사철 꽃이 피는 식물’, ‘여러 해살이 식물’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이보다 더 사철베고니아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말이 어디 또 있을까?

＊ 모범생만 ‘정답’은 아니지

언제나 웃고 있는 듯한 사철베고니아도 가끔은 힘들어 보일 때가 있다. 일 년 내내 쉬지도 않고 꽃을 피우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한다.

“힘들면 그만 쉬어도 돼. 지금까지 계속 꽃을 피웠으니까 이제 와서 쉰다고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위로하면,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요.”라는 대답만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꽂꽃하게 공부하는 모범생. 사철베고니아의 대답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런 모범생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 성실하기 그지없는 사철베고니아에게 ‘작심삼일’이란 아무 의미 없는 말이겠지?

생각해 보면 이런 시절 사철베고니아 흉내만 좀 덜 냈더라도, 그리고 사철베고니아가 아니란 것에 불안해 하지만 않았더라도 웬지 지금 보다는 내 인생의 뿌리가 좀 더 견고하게 박혀 있을 것 같다. ━



어제밤에는
달이 부서졌다는 소리를 바람이 창가에 와서
알려 주었다.

이 아침
그의 말은 헛소리가
아니었음을 알았다.

부서져 가루가 되어버린 달빛은
온 세상에 엎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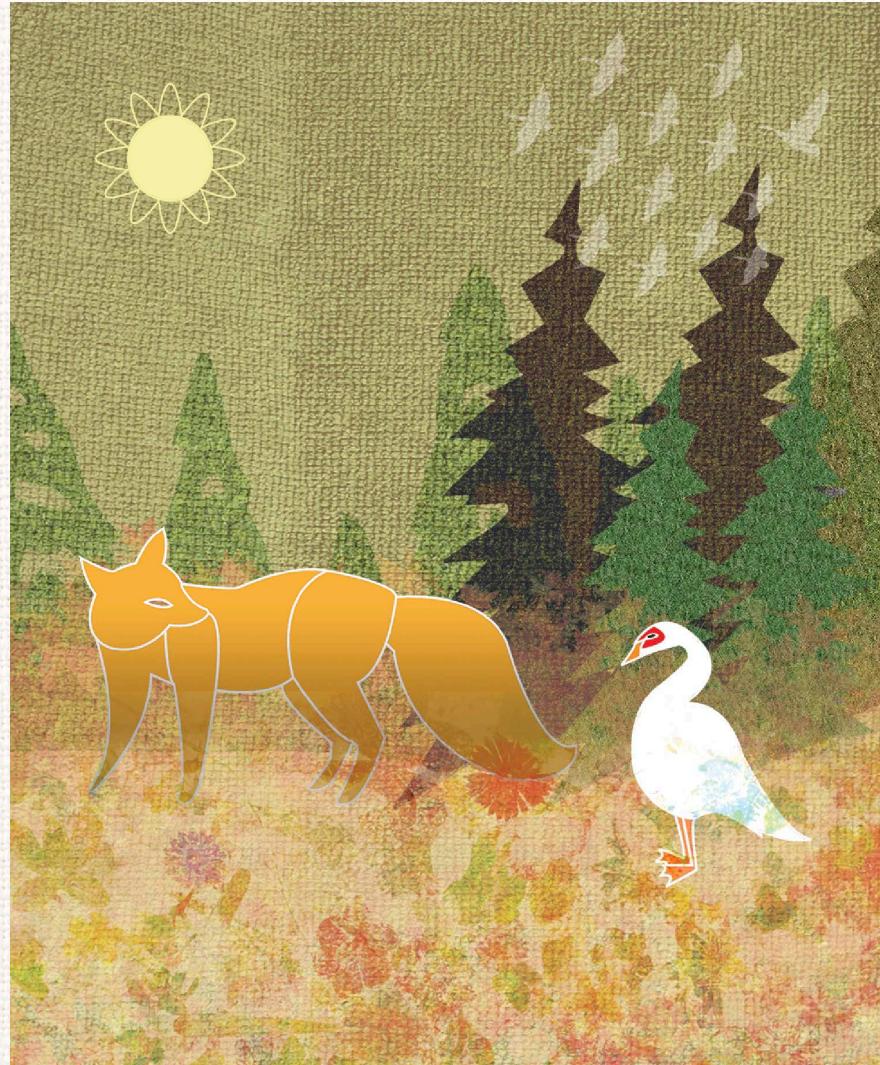
걸음 걸음
하얀 신음을 토해낸다.

뽀드득 뽀드득...



우리에겐 싫어할 이유와 권리가 있다

박현희
독산고 사회교사



여기에서 배우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한다는 것을



여우와 두루미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쩌면 둘은 싸웠을지도 모르겠다. 여우는 ‘그냥’ 두루미를 초대했다지만 사실은 화해를 원했기에 벌인 이벤트였을 수도 있다. 친하지도 않은 사이끼리 ‘그냥’ 식사 초대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작위적이다. 여우는 나름 솜씨를 부려서 맛난 것을 장만해 두루미에게 내놓았으나 두루미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얇은 접시에 담아 놓은 고기 스프를 맛있게 먹고 있는 여우를 보니 열만 받는다.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두루미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두루미는 잘 차려진 식탁 앞에서 배를 꽂고 돌아서야 했다.

곧이어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다. 차려 놓은 식탁 앞에서 열받는 쪽은 이번에는 여우이다. 여우는 좁고 긴 병에 담긴 음식을 먹을 재간이 없다. 두루미가 자꾸만 어서 먹으라고 권하지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여우와 두루미가 마주 앉은 그 우스꽝스러운 두 차례의 식사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으라고 배웠다. 두루미와 화해를 하고 싶었다면 여우는 두루미가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했다. 하지만 여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 그러니 그대들은 「여우와 두루미」이야기로부터 배우라. 당신이 대접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배려하라.

여우를 위한 변명

적어도 여우는 먼저 화해를 청했다. 화해의 식사 자리도 먼저 마련했으며, 두루미의 초대에도 선뜻 응했다. 그런데 왜 여우의 선한 의도는 생각해 주지 않고 그의 배려 없음만을 탓하는가? 많은 이들이 여우를 손가락질하지만, 나는 감히 ‘여우를 위한 변명’을 해보고 싶다.

여우가 그런 실수를 한 이유는 소문과는 달리 여우의 머리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꾀 많은 여우’라고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여우와 샤프한 외모로부터 파생된 선입견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우리는 여우가 꾀가 부족해서 겪는 여러 가지 곤경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데도 애써 그것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여우는 두루미와의 식사 이전에도 많은 우스운 꼴을 겪었다.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쓰고 호랑이 흉내를 내다가 봉변을 당한 이야기는 호가호위_{狐假虎威}라는 고사성어로까지 만들어져 사람들의 뇌리에 새겨졌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포도 좀 먹어 보겠다고 펄쩍펄쩍 뛰다가 포기하고 돌아서며 던전 그 한마디, “저건 신포도야”도 유명하다. 등장하는 이야기마다 여우는 머리를 쓰느라고 썼으나 별 볼 일 없는 결말을 만났다. 「여우와 두루미」에서도 철딱서니 없는 실수를 저질러 애써 마련한 자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고, 결국 두루미에게 초대 받은 식사 자리에서 쫄쫄 굶고 돌아오는 수모를 겪는다.

게다가 여우는 지나치게 순진하다. 두루미와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화해의 자리가 두루미를 완전 열 받게 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여우는 긴장해야 마땅하다. 적어도 상식이 있는 여우라면! 그런데 여우는 두루미의 식사 초대에 한 점 의심도 없이 응한다. 실수를 했어도 진심은 통한다고 믿었던 것일까? 호랑이 탈을 뒤집어쓰고 자신을 호랑이라 속이면 세상 끝까지 호랑이로 살 수 있으리라는 믿음도 너무 순진하고, “저건 신포도야”라고 돌아서면 포도 앞에서 안달하던 모습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그렇다. 세상이 딱 자기 수준일 것이라 믿는 순진함, 세상 모든 이들이 자기가 보여 주고 싶은 것만 볼것이라 믿는 순진함이 여우를 추문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

-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 줄까」



부처님 이마의 도끼

보현

실보사 전수



강원 공부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묘선스님은 매사 의욕적이었다. 그런 묘선스님에게 아침저녁 비질에도 깨끗해지지 않는 심원사의 낡은 외관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고 속상하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어느 날 노스님을 모시고 산책을 하게 된 묘선스님은 노스님에게 조심스레 아뢰었다.

“스님, 아무래도 절이 너무 낡아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절 살림이 어려워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노스님의 대답이 돌 아왔다. 그 대답에 묘선스님은 용기를 내어 스님께 다시 아뢰기를, “스님! 오늘부터 제가 백일기도를 드려 불사를 하겠습니다.”

묘선스님은 그날로 백일기도에 들어갔고 그 간절한 기도는 간곡하였다.

시간이 쉼 없이 흘러 백일기도를 회향하는 밤, 노스님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꿈에 부처님이 일러주시기를 기도가 간절하여 불심이 장하니 반드시 시주가 나타나 절 중창을 이루게 될 것이며 내일 아침 일찍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 바로 심원사 중창불사의 시주라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거뜬한 마음으로 묘선스님이 선문 밖을 나서는데 웬 나무꾼 한명이 나무를 하고 있었다. 꿈 생각을 한 묘선스님은 나무꾼을 자세히 보았다. 부지런하기로는 따를 자가 없는 아랫마을에 사는 머슴 박씨였다. 묘선스님은 의아했다. 처음 만나는 이가 절 중창시주라 하였는데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머슴 박씨라니... 그냥 지나칠까 잠시 망설이다 노스님의 꿈을 무시할 수는 없는지라 일손을 멈추고 공손히 인사하는 박씨 앞으로 다가가 간밤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주가 되겠느냐고 물었다. 박씨는 한동안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생각에 잠긴 박씨를 지켜보던 묘선스님이 막 자리를 뜨려는 찰라

“스님께서 제게 시주가 되라는 데는 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스님 말씀에 따라 40년간 머슴살이로 모은 저의 전 재산을 불사기금으로 시주하겠습니다.”

박씨의 시주로 심원사 불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갔다. 그러나 박씨는 시주 한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그만 자리에 몸져눕

고 말았다. 모아 놓은 돈을 모두 시주한 박씨는 약도 쓸 수가 없었다.
주인집에서는 일꾼이 일을 못하고 눕게 되자 공밥을 먹일 수 없다며
박씨를 심원사로 보냈다.

묘선스님은 박씨를 극진히 간병하면서 정성껏 기도를 올렸지만 차
도없이 병은 악화됐고 끝내 박씨는 죽고 말았다. 마을에서는 묘선스
님이 순진한 머슴 박씨를 속여 결국 죽게 하였다는 소문이 번졌다.

묘선스님은 더 이상 심원사에 머물 수가 없었다. 절을 떠나기로 결
심하고 새벽예불을 올리러 법당에 올랐다. 희미한 촛불속의 부처님
을 범자 가피는 커녕 시주자를 죽게 한 부처님이라는 원망 가득한 마
음이 올라왔고 자신도 모르게 혀간에서 도끼를 가져와 부처님 이마에
도끼를 내리찍고는 황망히 절을 빠져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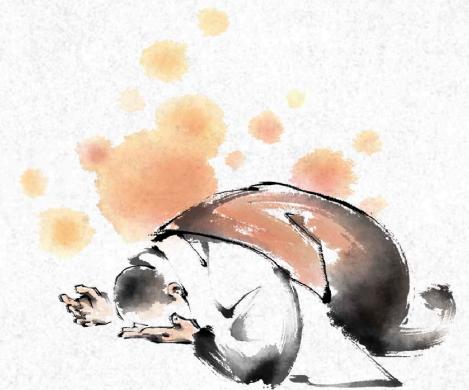
그 뒤 30년을 밭걸음 무겁게 만행하던 묘선스님은 심원사 부처님
이마에 박힌 도끼가 아직도 빠지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고 부처님
께 용서를 빌고 도끼를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 심원사를 찾았다. 심원
사는 30년 전 불사가 중단 된 모습 그대로였다. 그 모습에 묘선스님은
참회하는 마음에 가슴이 아팠다. 법당에 오르니 때마침 새로 부임한
젊은 원님의 3배를 올린 후 도끼를 뽑고 있었다. 원님은 돈독한 불자
로 부처님 이마의 도끼를 손수 뽑겠다고 절에 와있었던 것이다. 30년
을 꿈쩍하지 않은 도끼는 거짓말처럼 쉽게 빼졌고 그 도끼에는 [화주
시주상봉^{化主施主相逢}]이라고 적혀있었다. 이 모습을 법당 문밖에서 지켜
본 묘선스님은 그때 비로소 부처님이 박씨의 목숨을 거둬간 뜻을 깨

달았다. 묘선스님은 너무나 쉽게 도끼가 빠져 의아해하고 있는 사또
앞으로 달려갔다.

“소승이 바로 30년 전에 이 도끼로 부처님 이마를 찍은 사람입니다.
사또님의 전생은 이 절에 시주하신 박씨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시 시
주를 구한 화주승은 바로 저이고 화주승과 시주가 인연 있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화주시주상봉]이란 바로 오늘의 인연을 부
처님께서 미리 계시하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묘선스님의 설명을 들은 원님은 시주한 공덕에 삼세에 받을 업보를
한 생으로 끝마치고 금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 현재의 자신이 있음을
활연대오하였다.

심원사 중창불사는 30년 만에 다시 시작되었고 묘선스님은 그 절에
오래 머물면서 많은 신도를 교화하였고 원님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고
을을 평안히 다스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



너희들을 보내며

경문지

천안두정초등학교 교사



늘 그렇듯, 시간이 가고 1년이 흘렀다.

누구에게나 1월과 12월의 의미는 다른 달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이번 해만큼은 잘 보내겠노라 다짐하는 1월, 이번 해를 잘 지내느라 고생했다며 나를 토닥토닥 위로해주면서도 설레는 맘으로 내년을 기다리는 12월.



어느새 교사로서 이 시기를 맞이할 때면, 내 머릿속은 당연히 아이들의 생각에서 아이들의 생각으로 끝난다. 정말 다사다난했지만 신기하게도 어찌 늘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는지. 눈물 쏙 빼놓을 정도로 혼냈던 일부터 아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았던 일까지 희로애락이 골고루 떠오른다.

지난 해는 재작년과 달리, 한 반을 담임한 것이 아니라 5,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음악교과를 가르쳤었다. 하지만 그새 정이 많이 들었는지 초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으로 거듭나는 5학년과 이제 아예 학교를 떠나 중학교라는 더 큰 사회로 가는 6학년 아이들과의 인사가 꽤나 감성적으로 다가온다. 남은 지면은 그 중에서도 이미 키도 나를 훌쩍 넘어버린 우리 예비 중1, 6학년 아이들에게 부치지 못한 편지를 보낼까 한다.

아이들아! 음악선생님이야.



가장 춥고, 어느 누구도 다니지 않는 후미진 구석!

음악실에 찾아오느라 고생했어.

선생님과의 음악시간만큼은 따뜻하기 노력했는데, 여러분도 그랬길..!

음, 선생님은 사실 처음에는 담임선생님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저 음악을 잘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컸었어. 그런데 어느새, 백 명이 넘는 너희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하고, 속 깊은 곳의 고민을 공유하고, 같이 웃으면서 담임선생님 못지않은 애정을 갖게 된 것 같아. 누가 아프면 담임선생님만큼 걱정이 되고 챙겨주게 되더라.

참 서먹했는데, 아래 편해지고 나니까 우리 이별할 때가 되었네. 이제 수업시간을 빌려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못하니 편지로나마 전할까 해. 6학년임에도 다른 학년에 비해서 정말 착하고 순수했던 너희였지만, 많이 혼내기도 했었지?

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 하나야.

공부는 기본만, 나머지는 각자의 욕심만큼! 다만 '예의 있는 사람'이 되길. 선생님의 말에 반항하기도 하고, 무심코 욕을 쓰기도 하고.. 수업시간 와중에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서로 때리면서 욕하는 상황까지 벌지기도 했었지!!

하나같이 천사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너희인데, 혼자가 아닌 누군가 와의 부딪힘을 맞이할 때면 그새 악마가 나와 버리잖아.

그 악마를 막을 수 있는 법, 늘 예의를 지켜줘.

하고 싶은 말은 하되, 어른들께는 공손히, 친구들에게는 상냥히 말이야.

선생님은 중학교 시절이 아주 생생한데, 초등학교와는 또 다르게 정~말 다양한 성격과 모습의 친구들이 만나니 크고 작은 일들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참 많이 일어나더라. 그 속에서 너희가 상처받고, 혹여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길.. 앞으로의 너희가 겪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예의' 지키면서 당당히 살아가길..! 선생님은 늘 누구보다 기도해. 되게 특별한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저 당연함이 특별한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 마지막으로 명심!

음악 수업이 있는 수요일, 금요일이 늘 기다려진다고 했었지?

소곤소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6학년, 너희를 만난다는 생각에~ 너희들이어서 참 고마웠고, 너희들의 앞에 있는 선생님에게 마구마구 보내주던 진~짜 예쁜 미소 그대~로 간직해서 자기가 꿈꾸는 모습대로, 훌륭한 모습으로 자라길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을 담아 응원해...!

졸업식 날 담임선생님보다 더 울면 어떡하지?

하하~ 우리 마지막 인사는 그때 하자.

'예의'라는 날개 메고, 각자 잘하는 것들로 방향 잡아
훨훨 날아가길 바랄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6학년♥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내가 바라는 건 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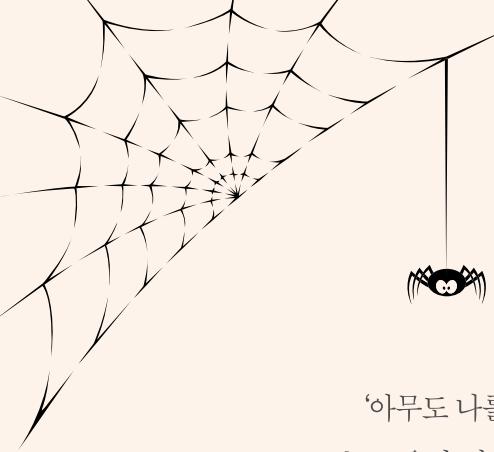
법일
벽룡사 주교



한 젊고 행복한 거미가 어느 조용한 방에서 자신의 첫 번째 집을 가장 알맞은 구석 모퉁이에 아주 크고 멋지게 지었다. 한 아주머니가 방에 들어오더니 거미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곧 남편이 나타나 첫 번째 거미집을 치워 버린다.

운 좋게 살아남은 거미는 기죽지 않고 두 번째 집을 화려하게 잘 지었다. 거미의 첫 먹이가 잡히기도 전에 하인이 나타나 빗자루로 거미집을 쓸어 걷어버렸다. 구사일생으로 도망친 거미는 기죽지 않고 조금 작게, 더 작게 집을 지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세 번째 집도, 네 번째 집도 모두 걷어지고 말았다. 여섯 번째 집이 무참히 짓밟히고 나자 거미는 너무 무섭고, 힘들었다. 거미는 지치고 굶주린 채 길을 따라 기어가다가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내가 바라는 건 고작 어딘가에 붙어 있는 조용한 집 한 채뿐이었다고. 나는 아무도 해칠 생각이 없었어. 그저 사람들을 위해서 파리하고 벌레들을 모두 잡을 생각이었어. 사람들은 어쨌든 원치 않는 것들이잖아. 거미의 삶은 너무 불공평해. 너무 배고프고 피곤하고 또 나는 혼자뿐이야.’

거미는 울기 시작했고 아무도 거미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덩치가 크고 살이 찐 거미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행복해 보이는 살찐 거미가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왜 울고 있니?”

거미는 그간의 일을 말했다. 슬픈 거미는 물었다.

“애. 넌 어쩌면 그렇게 통통하고 행복해 보이니? 너는 거미집을 지으면 사람들이 네 집을 없애버리지 않니?”

“난 여태까지 살면서 거미집을 딱 한 개만 지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어. 그리고 난 매일 많은 먹이를 잡아. 우리 둘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있어”

“도대체.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었던 거야?”

“아 그거? 나의 집은 사원의 불전함 속이야.”

-「시끄러운 원숭이 잠재우기」(야잔브라하마)

포살

布
薩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布 베 - 포

薩 보살 - 살

포살은 바라문교의 ‘우파바사타^{upavasatha}’라는 종교행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빨리어로는 우포사타^{uposatha}이며, 아쇼카 비문에 포사타^{posatha}라고 표기 되어 있다. 포살은 특정일에 모여 계경^{戒經}을 설하고 들으면서, 보름 동안 지은 죄가 있으면 참회하여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애는 수행법^{修行法}이다.

한역의 ‘포살’은 음역인데, 의역해서 근주^{近住:} 집에 있으면서 날마다 팔계를 지니고 삼보에 가까이 함·공주^{共住:} 함께 머물·장정^{長淨:} 청정을 쌓음·장양^{長養:} 길러 양성함·정주^{淨住:} 청정히 머물 등으로 번역한다. 또 수아^{守餓:} 배고픔을 지킴·재^{齋:} 삼감라고도 불리는데, 포살일에는 8재계를 지키므로 중국이나 한국·일본에서는 포살을 ‘재’라고도 하고, 또한 이 날은 단식을 하므로 수아^{守餓}라고 한다.

『비니모경^{毘尼母經}』에는 불선법^{不善法}을 끊고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을 포살이라고 한다.

“끊는 것을 포살이라 한다. 능히 범한 것을 끊고, 번뇌를 끊고, 일체의 불선법을 끊는 것을 포살의 뜻이라고 한다. 청정을 포살이라고 한다.”

영원한
진리와
With
Dharma
월호

포살에는 재가신자의 포살과 비구 비구니의 포살이 별도로 있다. 비 함께 구나 비구니의 포살은 보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만월인 보름날 밤과 신월인 그믐날 저녁에 한다. 하지만 재가신자의 포살은 보름에 세 번이 고, 한 달에 여섯 번이 되기 때문에 ‘육재일^{六齋日}’이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재가신자의 포살은 ‘정진일^{精進日}’이다. 재가신자의 포살에 대해서는 율장에 상세한 설명은 없고, 다소 소박한 형식으로 『숫타니파타』『담미까경』에 나타나고 있다.

“첫째, 생물을 해쳐서는 안 된다. 둘째, 주지 않는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 셋째,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 넷째, 음주자여서는 안 된다. 다섯째, 성욕의 부정행을 멀리하라. 여섯째, 때가 아닌 야간에 비시식^{非時食}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일곱째, 화환을 걸쳐서는 안 된다. 또한 방향^{芳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지상에 펼친 침상에만 누워야 한다. 실제로 이것을 여덟 부분으로 구성되는 우포사타^{uposatham}라고 한다. 고^苦를 정복한 불타가 설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보름의 14일, 15일 및 8일에 우포사타를 수행하라. 또 신변월^{神變月}에 여덟 부분을 갖춘 훌륭하고 완전한 우포사타를 신심 있는 마음으로 행하라. 그리고 우포사타를 해한 식자^{識者}는 신심 있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다음 날 아침 일찍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알맞게 비구상가에 나누어 드려라.” (『남전대장경』) ━

- * 불선법 비도덕적 행위 및 해탈에 방해가 되는 정신적 요소들
- * 비시식 먹을 때가 아닌 때 곧 정오正午가 지나서 먹는 일
- * 방 향 꽃다운 향기香氣, 좋은 냄새
- * 신변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팔재계^{八齋戒}를 지키며 정진하는 음력 1월·5월·9월의 삼장재월 三長齋月을 말함

주인공

主 임금 - 주 | 人 사람 - 인 | 公 공평할 - 공

主人公

소설이나 극중의 중심인물을 주인공이라고 한다. 또는 어떤 일이나 모임의 중심 인물을 주인공이라고 한다. 이 말은 본래 선종에서 ‘참다운 의미의 자주성을 지닌 인간’을 일컫는 말이었다. 즉, 외적 여건에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또 내면의 망상·망념에도 동요하지 않고 진실한 자아_{우주의 진리와 통하는 大我}로서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이 우주의 주인공인 것이다.

『법화경』「비유품」에

“지금 이 삼계는 다 나의 것이며, 그 안의 중생은 모두 다 나의 자식이거늘……”라고 했다.

즉 석존이야말로 대우주의 주인공인 것이다.

또 본래의 ‘자아’라는 뜻이기도 하다. 즉 상대를 초월한 절대적인 주체를 말한다. 따라서 선종에서는 나 스스로가 ‘나’의 주인공이며 동시에 대우주의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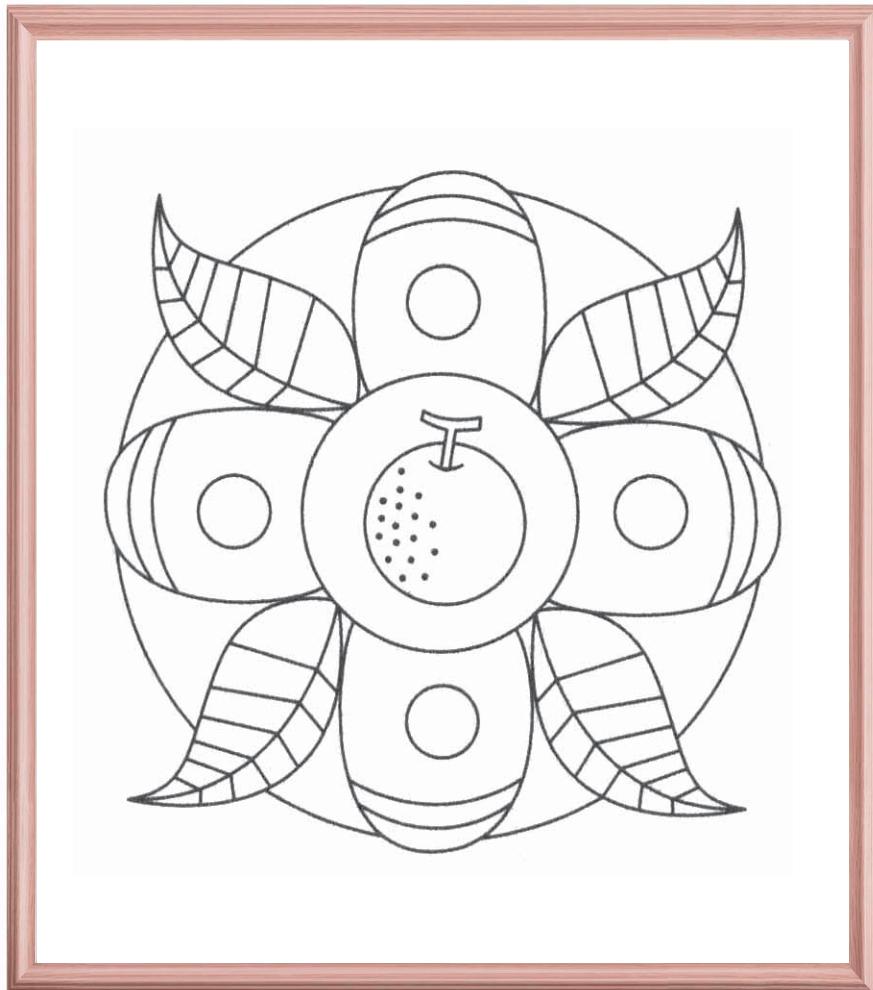
‘이 뛴고’라는 화두를 세우고 평생을 두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주인공인 것이다.

석존이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유아독존_{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고 천명한 말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 ‘주인공_{主人公}’이란 낱말을 처음 사용하였을 때에는 득도_{得道}한 인물_{人物}을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외부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번뇌망상_{煩惱妄想}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자아_{自我}, 즉 무아_{無我}를 누리는 자아를 일컫는 말이다.▲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호 독자 솜씨

◀ 서울 전영희 님



◀ 광주 전은경 님



◀ 울산 이유정 님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 됩니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편집 후기

지난 한 해

바쁘게 달려왔다.

올해도 많이 분주해 질 것 같다.

즐거운 바쁨인지라

또 다른 희망을 기대 해본다.

올해에도

모든 마음과 귀를 기울여

위드다르마로 들어오는

소중한 말씀들을 새길 것이다.

한 해를 뿌듯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독자와 작가분들 덕분이다.

지면을 활용해서,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sunmac72@naver.com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종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양숙 김종철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유정식 이영재 지 정 총지화
최순기 허지웅



발행일 총기 47(2018)년 1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 책임 이선희

디자인 (주)디자인자

인쇄 동림기획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드다르마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월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이다

그러니 남도 그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인정하라

세상의 평화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 환당 대종사 -